

이창한 / 5월 / 기초GS / 4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519988	17	11.5	0	0	28.5	1	0.65%	154
522695	17	11.5	0	0	28.5	1	0.65%	
516047	16.5	11.5	0	0	28	3	1.95%	
521709	17	11	0	0	28	3	1.95%	
521684	16	11.5	0	0	27.5	5	3.25%	
521715	16	11	0	0	27	6	3.90%	
521721	16	11	0	0	27	6	3.90%	
513434	16	10.5	0	0	26.5	8	5.19%	
516169	16.5	10	0	0	26.5	8	5.19%	
521736	16.5	10	0	0	26.5	8	5.19%	
521751	16	10.5	0	0	26.5	8	5.19%	
523118	15.5	11	0	0	26.5	8	5.19%	
519980	16.5	9.5	0	0	26	13	8.44%	
520014	16.5	9.5	0	0	26	13	8.44%	
520866	15	11	0	0	26	13	8.44%	
519966	14.5	11	0	0	25.5	16	10.39%	
519973	16	9.5	0	0	25.5	16	10.39%	
520083	16.5	9	0	0	25.5	16	10.39%	
521152	15	10.5	0	0	25.5	16	10.39%	
506622	15	10	0	0	25	20	12.99%	
515457	15.5	9.5	0	0	25	20	12.99%	
515461	15.5	9.5	0	0	25	20	12.99%	
515462	16	9	0	0	25	20	12.99%	
515491	16.5	8.5	0	0	25	20	12.99%	
519976	14	11	0	0	25	20	12.99%	
521679	15	10	0	0	25	20	12.99%	
521680	15.5	9.5	0	0	25	20	12.99%	
521683	15.5	9.5	0	0	25	20	12.99%	
521694	16.5	8.5	0	0	25	20	12.99%	
521717	16	9	0	0	25	20	12.99%	
522029	16	9	0	0	25	20	12.99%	
518261	15.5	9	0	0	24.5	32	20.78%	
519964	14.5	10	0	0	24.5	32	20.78%	
519967	15.5	9	0	0	24.5	32	20.78%	
520028	16	8.5	0	0	24.5	32	20.78%	
521711	14	10.5	0	0	24.5	32	20.78%	
521719	15	9.5	0	0	24.5	32	20.78%	
521724	15.5	9	0	0	24.5	32	20.78%	
522250	15	9.5	0	0	24.5	32	20.78%	
506605	14	10	0	0	24	40	25.97%	
515366	15	9	0	0	24	40	25.97%	
520002	15.5	8.5	0	0	24	40	25.97%	
521696	14.5	9.5	0	0	24	40	25.97%	
522182	14.5	9.5	0	0	24	40	25.97%	
515393	14	9.5	0	0	23.5	45	29.22%	
515447	14	9.5	0	0	23.5	45	29.22%	
515492	14.5	9	0	0	23.5	45	29.22%	
518268	15	8.5	0	0	23.5	45	29.22%	
519984	14	9.5	0	0	23.5	45	29.22%	
520738	15	8.5	0	0	23.5	45	29.22%	
521713	15.5	8	0	0	23.5	45	29.22%	
515355	14.5	8.5	0	0	23	52	33.77%	
515423	14.5	8.5	0	0	23	52	33.77%	
515446	14.5	8.5	0	0	23	52	33.77%	

515466	14.5	8.5	0	0	23	52	33.77%
520053	14	9	0	0	23	52	33.77%
521038	14	9	0	0	23	52	33.77%
521688	13.5	9.5	0	0	23	52	33.77%
521731	15.5	7.5	0	0	23	52	33.77%
522324	14.5	8.5	0	0	23	52	33.77%
515482	15	7.5	0	0	22.5	61	39.61%
519960	14.5	8	0	0	22.5	61	39.61%
519971	15.5	7	0	0	22.5	61	39.61%
519975	16	6.5	0	0	22.5	61	39.61%
520017	13	9.5	0	0	22.5	61	39.61%
520818	16.5	6	0	0	22.5	61	39.61%
521723	13.5	9	0	0	22.5	61	39.61%
521746	13.5	9	0	0	22.5	61	39.61%
521759	14	8.5	0	0	22.5	61	39.61%
522368	16	6.5	0	0	22.5	61	39.61%
522577	16	6.5	0	0	22.5	61	39.61%
515370	13.5	8.5	0	0	22	72	46.75%
515470	13.5	8.5	0	0	22	72	46.75%
515487	14	8	0	0	22	72	46.75%
519972	15.5	6.5	0	0	22	72	46.75%
519974	14	8	0	0	22	72	46.75%
520011	14.5	7.5	0	0	22	72	46.75%
520741	14	8	0	0	22	72	46.75%
521692	14.5	7.5	0	0	22	72	46.75%
521695	13.5	8.5	0	0	22	72	46.75%
521726	14	8	0	0	22	72	46.75%
521728	16	6	0	0	22	72	46.75%
521730	14	8	0	0	22	72	46.75%
523156	14.5	7.5	0	0	22	72	46.75%
520018	12	9.5	0	0	21.5	85	55.19%
521718	16	5.5	0	0	21.5	85	55.19%
521756	11.5	10	0	0	21.5	85	55.19%
514114	13.5	7.5	0	0	21	88	57.14%
515429	12.5	8.5	0	0	21	88	57.14%
520910	11	9.5	0	0	20.5	90	58.44%
521737	10.5	10	0	0	20.5	90	58.44%
521740	11.5	9	0	0	20.5	90	58.44%
521747	15	5.5	0	0	20.5	90	58.44%
515567	15	5	0	0	20	94	61.04%
520826	13	7	0	0	20	94	61.04%
521690	11.5	8.5	0	0	20	94	61.04%
521765	15.5	4.5	0	0	20	94	61.04%
515346	11.5	8	0	0	19.5	98	63.64%
519946	14.5	5	0	0	19.5	98	63.64%
521760	13	6.5	0	0	19.5	98	63.64%
523276	14.5	5	0	0	19.5	98	63.64%
519979	11	8	0	0	19	102	66.23%
520809	10	9	0	0	19	102	66.23%
520831	9.5	9.5	0	0	19	102	66.23%
521786	15	4	0	0	19	102	66.23%
515440	11	7.5	0	0	18.5	106	68.83%
515456	14.5	4	0	0	18.5	106	68.83%
522851	12.5	6	0	0	18.5	106	68.83%
523040	14.5	4	0	0	18.5	106	68.83%
515444	13	5	0	0	18	110	71.43%
520048	14	4	0	0	18	110	71.43%

521689	10	8	0	0	18	110	71.43%
521735	14.5	3.5	0	0	18	110	71.43%
521752	12.5	5.5	0	0	18	110	71.43%
522852	14	4	0	0	18	110	71.43%
519961	9.5	8	0	0	17.5	116	75.32%
520887	14	3.5	0	0	17.5	116	75.32%
520892	8.5	9	0	0	17.5	116	75.32%
523532	9.5	8	0	0	17.5	116	75.32%
514532	8.5	8.5	0	0	17	120	77.92%
519983	11	6	0	0	17	120	77.92%
520813	11	6	0	0	17	120	77.92%
521685	11.5	5.5	0	0	17	120	77.92%
515458	14.5	2	0	0	16.5	124	80.52%
515479	10.5	6	0	0	16.5	124	80.52%
520810	16.5	0	0	0	16.5	124	80.52%
521686	10.5	6	0	0	16.5	124	80.52%
521720	8.5	8	0	0	16.5	124	80.52%
521761	11.5	5	0	0	16.5	124	80.52%
521762	16	0	0	0	16	130	84.42%
520732	13.5	2	0	0	15.5	131	85.06%
520735	11.5	4	0	0	15.5	131	85.06%
521710	15	0	0	0	15	133	86.36%
521712	8	7	0	0	15	133	86.36%
520043	9.5	5	0	0	14.5	135	87.66%
521682	10.5	4	0	0	14.5	135	87.66%
521758	14.5	0	0	0	14.5	135	87.66%
514504	7.5	6.5	0	0	14	138	89.61%
519943	8.5	5.5	0	0	14	138	89.61%
520733	11	3	0	0	14	138	89.61%
521727	13.5	0.5	0	0	14	138	89.61%
521763	14	0	0	0	14	138	89.61%
520062	13.5	0	0	0	13.5	143	92.86%
521722	9	4.5	0	0	13.5	143	92.86%
521753	7	6.5	0	0	13.5	143	92.86%
515369	13	0	0	0	13	146	94.81%
521739	9.5	3.5	0	0	13	146	94.81%
522506	13	0	0	0	13	146	94.81%
519978	7	5.5	0	0	12.5	149	96.75%
521743	9	3.5	0	0	12.5	149	96.75%
521755	8	4.5	0	0	12.5	149	96.75%
522327	10	2.5	0	0	12.5	149	96.75%
521733	8.5	3	0	0	11.5	153	99.35%
521741	3	4	0	0	7	154	100.00%

[문제-1]

I 실문(1)

1 논쟁점

등 청구에서 ㉠ 원고의 토지권, ㉡ 피고의 등기 정표의 사실은 권리관계사실이다. 이 때, 등기의 원인무효사실을 권리 관계 사실로 볼지, 원인무효사실을 ㉠, ㉡ 사실과 양립 가능한 항변사실로 볼지가 문제되는 바, 이는 등기의 추정력의 성질과 관련된다.

2.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전환의 문제

(1) 문제점

법률상 추정은 법률상 추정 규정을 적용한 추정이고, 사실상 추정은 경험칙을 적용한 추정이다. 사안에서 등기부의 위조사실이 진위불명이므로, 등기의 등기권리, 등기원인, 등기 절차에 대한 추정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상 추정으로 볼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 법률상 추정설 ㉠ 불안정한 공식방법인 점위에 도 법률상 추정을 인정한 것과의 균형상, 법률상 추정이라고 보며, ㉡ 이 추정을 복멸하려면 상대방이 本證을 제출해 법원이 추정사실의 반대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한다고 한다.

2) 사실상 추정설 ⑦ 명문의 규정도 없는 법제에서 강력한 법률상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추정으로 보며 ⑧ 이를 복멸하기 위해 상대방은 반증을 제출해 추정사실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하든 충분하기에 입증책임이 전하지 않는다.

### (3) 취지

"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그 등기를 무효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바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 (4) 검토

등기된 권리가 법률상 추정된다고 보아야 제3자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추정설이 타당하다.

## 3. 등기말소청구의 권리관계사실과 증명책임 분배

### (1) 권리관계 사실

등기말소청구에서 등기의 원인 무효의 사실도 권리관계사실이다.

### (2) 증명책임 의의와 분배

통설, 취지인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하면, 각 당사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지므로, 권리주장자는 권리관계 규정의 요건사실에 관해, 상대방은 권리의 장애·멸각·저지 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일진다.

## 4. 실부의 해결

헌재명외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말소를 청구하는 원고甲은 매매와 승계가 위조되었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결국, 위조사실이 진위불명이므로 법원은 승계를 형성하지 못했으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 II. 설문(2)

### 1. 논점 정리

기관력은 확정된 공처판결의 내용이 가지는 효능에 대한 구속력으로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다. 전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후처에 기관력이 작용하는지 검토한다. 특히 설문의 ㉠이 「변론종결 뒤 승계인」으로서 (제28조 제1항)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각 청구의 원인무효 사유가 다른데도 후처에 기관력이 작용하는지가 문제된다.

### 2. 기관력의 주관적 범위

#### (1) 상대성 원칙과 확장

기관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침이 원칙이다. 다만, 분쟁 해결의 실현성을 위해 명문 규정 외에 판결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다.

#### (2)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1) 「변론종결 뒤」에 승계한 자일 것

i. 소송을 제기당한 자가 소송 중 주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물건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때인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승계를 판단한다.

ii. 변론종결 뒤의 요건을 충족한다.

## 2) 승계인의 범위

① 소용물인 실체법상 권리·의무 자체의 승계인

이 경우에는 소용물의 채권·물권 여부 불문, 여기의 승계인에 포함된다.

## ② 계쟁물 승계인

i. 학설 이 경우 귀론은 소용물이 물권적 청구권인 때 대세효가 있어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포함되지만,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신이론은 채권적 청구권이 소용물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한다.

ii. 위1제 "전소 소용물이 채권적 청구권일 때 변론종결 후 승계를 경료받은 자는 변론종결 후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귀론 입장이다.

iii. 검토 소용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승계인은 원고와 양립하는 전리를 갖고 원고에게 아무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다 위1제가 타당하다.

## 3) 승계인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 ① 학설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 아니라는 실질설과, 승계인이라는 형식설이 있다.

### ② 위1제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한 경우, "이권등기를 명하는 확정 판결의 변론종결 후속 목적물을 대수해 등기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실질설의 입장이다.

### ③ 강도

고유한 방식방법을 가진 승계인에게 노증상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담하므로 위헌제가 타당하다.

### 4) 실물의 경우

곳은 부동산, 즉 계쟁물을 승계했고, 노증물이 불권적 청구이며,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은 존재되지 않으므로 위헌제에 의해서도, 변론종결 뒤 승계인에 해당한다.

## 3. 기관력의 객관적 범위와 작용구면

### (1) 객관적 범위

그에 대한 말소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의 주문에 기관력이 발생한다.

### (2) 작용구면

기관력은 후속 노증물이 전속 노증물과 동일, 연결 또는 모든 관계에 있을 때 작용한다.

### (3) 전, 후속의 말소청구 노증물 동일 여부

말소등기청구의 노증물은 당해 등기말소 청구권의 주장이고, 그 동일성의 식별 기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이므로, 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적방어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소와 후소의 등기말소청구의 소송물은 같다.

- (4) 변론종결 뒤 승계인을 말소청구한 경우 소송물 동일 여부 말소청구의 등기판결 확정 후 승계인을 상대로 말소청구한 경우, 판례는 후소를 각하하는데, 이는 전소 판결의 내용이 승계인 등의 무효 여부 판단의 선결관계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동일이든 선결이든 기판력의 작용후면이다.

#### 4.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차단효과

기판력은 사실상 변론종결 시의 권리관계 판단에 생기므로 당사자는 전소 변론종결 전에 제출할 수 있었던 공적방어방법을 후소에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게 약이 가장매매'라는 변론종결 사유에 대한 주장은 차단된다.

#### 5. 기판력 본질

##### (1) 위시제의 모순금지설

기판력을 재판통일을 위해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금지하는 논리로 보고, 동일 소를 승소자가 제기하면 소의 허용으로 각하, 패소자가 제기하면 모순금지로 기각한다.

##### (2) 반복금지설

기판력을 분쟁해결의 일회성을 위해 다시 재판 금지 논리로 보고, 승패 불문 동일 소제기시 기판력을 이유로 각하한다.

##### (3) 강토

반복금지설은 소송물이 다른 경우 '반복'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한 기관력이 작용하는 근거를 설명할 수 없어 오  
순금지설이 타당하다.

## 6. 물문의 해결

호소 법원은 甲의 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문제-2]

### I. 설문(1)

#### 1. 논쟁 정리

재판상 자백은 변론 또는 변론 준비기일에서 한 상대  
방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주요사실'의 진술  
이다. 그런데 남인의 진정이라는 보론사실도 인정하면  
자백이 되는지 문제된다. 자백은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 2. '남인한 것을 인정한다'라는 진술의 자백 여부

##### (1) 취지제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론사실에 관한 자백  
이나 그 취지에 관하여는 주요사실의 자백 취지나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  
한 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여 자백을 긍정한다.

##### (2) 확정

① 긍정성은 처분문서의 경우 진정성립, 남인, 인정의 진  
정이 갖는 의미와 긍정성은 주요사실에 관해 이에

대한 자백은 범인과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한다.

② 부정실은 보르사실은 간접사실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간접사실의 자백처럼 범인과 당사자를 구속하지 못한다고 한다.

### (3) 검토

자백으로 보고 철거를 제한하면 신뢰가 추진되고, 허반인  
과 상대방 당사자의 신뢰보존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 3. 자백의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과 자백의 철회사유

### (1) 자백의 철회 제한

자백과 같은 예외적 능동행위는 범인의 행위가 개입  
되지 않고 직접 능동성 효력이 발생하므로, 절차안정과  
상대방의 신뢰보존을 위해 원칙적으로 철회불가능하다.

### (2) 자백의 철회 제한 예외

㉠ 자백이 제3자의 형사상 처벌받은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때 재심사유 제5호를 유족해 철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동의한 때, ㉢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때 (제 288조 단서)에도  
철회할 수 있다. ㉣ 소송대리인의 자백은 당사자가  
정정할 수 있다 (제 94조)

## 4. 실문의 해결

결국 본인의 진리를 인정하며 자백이 되었으나, 자백



이 처벌받을 행위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절히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날인한 사실을 번복할 수 없다.

## Ⅱ. 실문(2)

### 1. 진정성립

"문서가 증서신정 당사자에 의해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을 문서의 진정성립이라 하고, 진정성립된 문서를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고 한다. 실질적 증거력은 계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을 인정해야 하는가 문제된다.

### 2. 매매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

甲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대해 乙이 '자신이 기재한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진정성립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 3. 매매계약서의 실질적 증거력

#### (1) 판단

실질적 증거력은 인부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법관의 자유심증에 일임되어 있다. 다만 판단함에 있어 추정이 이용된다.

#### (2) 추정 - 처벌문서의 경우

처벌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문서에 기재



2.5 된 대로의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실질적 증거력, 즉 법률행위의 사실이 진실함이 사실상 추정된다. 추정에 의해 법원의 자유심증은 제한된다.

#### (가) 복별 - 자유심증과의 관계

위 추정은 사실상 추정에 불과하므로, 다툴 자가 "반증"에 의해 내용의 진정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할 사정을 입증하면 추정이 복별된다. 이렇게 "처분 문서의 진정성능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법원은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 하면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일탈로 위법하다.

#### 4. 설문의 해결

0.5 사안에서, 매매 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고, 처분문서이기에 실질적 증거력 또한 사실상 추정된다. 이에 甲의 주장과 동일하게 乙의 증인 丙이 내용의 진정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할 사정을 입증하였기에 추정이 복별된다. 따라서, 법원은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인 '매매대금 2억원'을 배척할 수 있다.

(끝)

[문제-1]

I. 서문(1)

1. 논점장비

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원사상은 1)원고 호지상유, 2)피고 등기청구 사실에 있다. 이 때, 등기의 원상유무원사상은 권리관계청구의 불지, 아예 원상유무원사상을 항변으로 볼 것 안가에 관하여 등기 주장자의 법적상징 논의가 문제된다.

2. 등기의 주장자와 증명책임 전환 문제

(1) 문제점

1)법률상 주장은 법률상 주장제정 적용에 의한 주장을 말하며, 2)사실상 주장은 경험칙에 의한 주장을 말하는데, 등기권 원리에 대하여 주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법률상 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쟁점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된 권리는 유력한 것으로 추정되며,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무효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을 진다"하여 법률상 주장으로 인정한다.

(3) 해설

① 법률상 주장

불원천한 금지방법인 점유에로 민법 200조에 따라 권리의 주장자가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sup>법률상</sup> 등기에로 권리주장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에 상대방이 부응해서 주장사실에 대한



반대사실에 관하여 법원에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 ② 사실상 추정

강력한 추정  
명문 규정 또는 법제하에서 증명책임이 전환되는 법률상 추정을 인정할 수 있다. 입증책임 전환되지 않으므로 반증으로 추정사실에 관해 법원이 의심을 품게 하는 정도로 주야.

### (4) 검표 및 사안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법제 하에서 제 3자 등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상 추정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등기원인무효사실을 전제거사실에 해당한다.

## 3. 등기원인무효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및 그 분배

### (1) 증명책임 의미 및 분배기준

당해 사실의 관련분명시, 해당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당사자 일방이 반박하는 불이익은 증명책임이라 한다.

③ 총칙. 판례인 법률외관규정에 의하면,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원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따라서 권리주장자는 전제거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상대방은 반대 추정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진다.

### (2) 등기원인무효사실의 경우

판례는 "등기의 정본시, 등원 권리는 등원 권리. 등기 원인. 등기자가 정본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부합을 주장하는 자가 등기가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3) 사실

따라서 甲이 손해 등 관련 사실의 위조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4. 문(1) 해답

0.5 / 1  
甲이 증명책임 지는 위조사실이 전위불명인 바, 법원은  
원고 甲 장구 기각판결해야 한다.

II 문(2)

1. 본심 정리 - 기판력 및, 근거

기판력이란 확정된 중급 판결의 내용이 갖는 효력에 대한  
구속력을 말하며, 확정판결성을 근거로 한다.

사실에서 ㄱ) 이미 다른 중급 또는 승계인 해당여부, ㄴ) 다른  
등기장의 원인불명사실이 상이한 때 소용중 동일여부, ㄷ) 가장  
해매사실이 다른 중급 전 사유로서 치단되는지 검토한다.

2. 기판력 관련 방법

(1) 상대성원칙과 확대

기판력 상대성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만 판결 효력 미침이  
원칙이나, 판결 실효성 확보위해 제283항의 다른 중급 중  
승계의 경우 확장판결로 한다

(2) 다른 중급 중 승계인 요건

1) 다른 중급 중 승계인 것



판례는 "변조 종료 뒤 승계 이루어졌는가는 원채권자의 권리 발생 시점인 등기 경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2) 「승계인」 해당하는 것

① 승물을 자체 승계한 경우

승물로 그 자체인 신체법상 권리. 의무 승계한 자는 채권. 채권 불을 승계인 해당하는다

② 거점권 승계인의 경우

1) 거점권의 경우, 승물이 승계인 창계인 경우 승계인 해당되나, 승물이 채권자 창계인 경우 승계인이 아니라고 하며, 십이권의 경우, 승물이 채권자 창계인 경우에도 승계인이 아니라고 한다.

2) 판례는 "승물이 채권자 창계인 경우 변조 종료 뒤 등기를 경료한 자는 승계인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거점으로 인정한다.

3) 생각전대, 승물이 채권자 창계인 경우, 승계인은 원고와 법률상 양립 가능한 자위를 가지며, 승계인에게 의무를 지게 되는 것도 아닌바, 판례는 인정한다.

3) 「국유한 방법방법」 관련

① 하위

1) 실질상 변조 종료 뒤 승계인 아니므로, 양변 상황 가능성이 있어도 승계행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원고가 승계행위를 부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판사지침방법 제33조)

2) 형식상 변조 종료 뒤 승계인이므로, 변조 종료 뒤 승계인 자체로 승계인이므로 원고에 승계행위를 부여하고, 승계인이

정당불복의 이익의 소를 제기하면 다룰 수 있다 한다(민사집행법 제453)

② 문제

명예신장 해지 여부를 등판요청한 사안에서, "소용물이 처분과 처분이므로 등기정당한 자는 변론 종료 후 승재인 아니다"고 한 바 있다

③ 검토

위와 같은 방법방법 있는 자에게 이익의 소 제기 소용상 부당함을 지양할 것은 부당한바. 실질상 하등하다

(3) 소의

위와 같이 판정 확정 후 즉시 매수하면 등기정당한 자로서 변론 종료 후 승재하리라, 소용물 등판요청인바, 승재인 해당하며, 위와 같은 방법방법 문제 없음 변론 종료 후 승재인이다.

2. 가판권 재산가치평가와 정당한

(1) ① 「가판권을 판정 받을 내용에 대하여 배정한다 (제216조 1항).

② 전. 후 소용물이 동일. 전. 후 원관계인 경우 가판권 정당한

(2) 양도등기청구권 소용물 동일 여부

판례는 "양도등기청구권 소용물 당해 양도등기청구권이고, 소용물 사변가치 있는 처분인양 등기원인무효이며, 원인 부존을 이루는 개척제일 사실효은 독립한 공적방법방법이다." 고함, 원인무효 사실효을 달리 주장하리라, 실제법상 근거가 인정되면 가한 방법배치 청구권으로 가한 소용물 동일하리라 한다



③ 변조 증조 & 증제인의 만조증거가 소를 증명인지  
판례는 전소 만조증거가 소판정 확정 후, 변조 증조 주  
증제인에 증명한 만조증거한 사안에서, 소이해 함으로  
작하한바 있어, 소를 증명하라고 볼 수 있다.

(4) 소조

① 전소 확정판결 주체인 「甲 만조증거한 변조한다」에 기판력  
발생하고, ② 전·후소 원인무효사실이 위조사실과 가장해매사실로  
상이하나, 소장은 증만조증거로 증명하여 작음주언이다.

#### 4. 기판력 사정범위와 차관료

① 기판력은 변조 증조 당시 권리관계에 발생한다. 전소 당사자가  
변조 증조 전에 발생한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여 전소 판결  
내용은 다를 수 있다.

② 사안에서, 가장해매 사실은 전소 변조 증조 전 사유 해결하여  
후소에서 차관한다.

#### 5. 기판력 본질 논의

(1) 판례의 만조증거

재판의 효력을 위하여 만조된 판결 방지 위해, 승소한 자의  
증언소 제기시 소의 효력으로 인정하, 패소자 제도시 제기한다.

(2) 만조증거

본쟁의 이익을 위해, 증언소 만조 제소를 할 수 있고,  
증대 불문 증언소 제기시 기판력을 이유로 인정한다.

(3) 장조

변론증거사실은 상응을 상이한 사실. 만일 경우를 설명할 방법이 없기에, 판례 만치로 하겠다.

## 6. 원해적

0.5 / 1.5  
 위의 후소는 법원에 가장매매사실 증거로 확인된 것과 관계 없이 판례 만치로 하겠다. 따라 가장판결을 하겠다 [문]

## [문제-2]

### I 원(1)

#### 1. 논점정리 - 재판상 자백의

변론사실 또는 변론증거사실에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원사실의 진위를 자백이라 한다.

원판. 이 보조사실인 '남의 전장'에 대하여 인정하는 진술했는데, 이를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의 진술 채택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 2.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개념

0.5 / 1.5  
 문서 저술자에 의하여 주장되는 자가 의사에 기하여 문서 작성한 경우, 문서 진정성립 되었다 하며, 진정성립된 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을 갖는다

#### 3. 형식적 증거력 판단

(1) 남의 전장 자백 거부 -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

1) 하소



## ① 인정

본인의 진정성립, 남인의 진정, 민영의 진정은 그 의미나  
관련성이 관련사실에 준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도 관련사실과  
같이 인정되며, 자백시 당사자. 법원 구속한다.

## ② 부정

부르사실을 진정사실과 같은 영향을 미치므로, 진정사실에 관한  
자백이 부인정리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심증의 제한을 막기  
위해 자백 부정되고, 당사자 모두 구속되지 않는다.

## 2) 판례

"본인의 진정성립에 관한 <sup>인정</sup> 진정은 부르사실에 관한 것이나,  
관련사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며, 재판상 자백하였는지 "확실히"  
"자백된 이상 정도 정도 불거지며, 이는 민영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로 마찬가지이다." 실무상 남인의 진정도 자백 성립된다.

## 3) 합리

정신 신중한 태도, 증반인. 자각증원처. 상대방 신뢰보존의  
취지상 자백 긍정함이 타당하다.

## (2) 사안

주요 1회 변론기일에서 날인한 자백을 인정하는 진정을 했다.  
이는 2에게 불리한 진정에서 자백 성립한다.

## 4. 자백 철회 가부

## (1) 철회 제한

여고소 소송행위로서 절차상정당 소용행위인 자백은 거짓만정

상대방 신뢰보호 위해 권리 제한됨

(2) 지각의 예외

① 자백이 형사상 처벌받을 제 3자 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② 상대방 동의시, ③ 착오. 변질상의 경우, ④ 당사자 정당한  
행위(제94조)의 경우 예외로 권리 가능함

5. 부분(1) 해설

① Z이 B의 기밀에서 남인의 장영 자백하였고, ② Z의  
기밀에서 남인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B에게 권리로 볼 수  
있는데, ③ 자백 제외 사유 존재하지 않음바, ④ Z의  
남인 사실 알리는 주장 불가함.

II. 문제(2)

1. 논쟁점

Z이 변질과정에서 B가 전정명령을 인정하는 정도였는바,  
대매계약서 형식적 증거 인정됨. 이때, 문서의 신빙성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Z 주장하는 복원사유 관련 검토함

2. 사실적 증거력

(1) 개명

B가 증거력을 증명하기에 적합한 가치를 가졌는가에  
대한 것이 문서 신빙성 증거력임.

(2) 판관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은 판례 법원의 자유심증에 밀임되어 있다.

### (3) 추정 - 처분문서의 경우

당해 문서가 처분문서인 경우, 문서의 진정성이 인정된 경우 실질적 증거력이 사실상 추정된다.

### (4) 복제

① 따라서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에 대한 "사실상 추정을 다루는 자는 반증은 들어 문서 내용의 진정에 대한 법원에 의심을 품게 하면 된다." ②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옳바르지 않거나 내용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법원은 문서 기재된 법률행위를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다.

### 3. 원(2) 해고

① 그의 매매계약서 성립의 인정 정도로 형식적 증거력 있다.

② 매매계약서는 법률행위가 문서로서 이루어지는 처분문서이므로 형식적 증거력 인정시 실질적 증거력이 사실상 추정된다.

③ 다만, 그 추정되는 사실과 0통과가능한 증명행위로서만 원고는 주장하였고, 법원으로 증인을 통해 해설을 얻었는데,

④ 사실상 추정이 복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계약서 기재된 내용을 배제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결]

-이하여-